

한국농어촌공사, 제31회 대원상 시상식 개최

- 남다른 효행 정신 '눈길' -



(사진설명)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1회 대원상 시상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7일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31회 대원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1994년 김영진 전 사장의 사재 출연을 계기로 마련된 '대원상'은 효도 정신과 이웃사랑 문화를 널리 전파하기 위한 공사만의 전통으로 지금까지 111명의 효행·봉사를 실천한 직원에게 상이 수여되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간경화증으로 투병하는 부친에게 간을 이식해 주고, 지극정성으로 간병한 ▲양평광주서울지사 안수빈 대리 ▲안성지사 배현우 주임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병호 사장은 "각자 맡은 업무에 성실이 임하면서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숭고한 일"이라며 "오늘 시상식이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총무인사처 인사부	책임자	부 장	김혜숙 (061-338-5991)
		담당자	대 리	임태환 (061-338-6001)